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비자 재정 사정 좋아... 자산 급등으로
- Bloomberg: 미국인, 미 인플레이 안정 느끼지만 일자리 등에 우려
- Bloomberg: “미국 인플레이 급증은 탐욕스런 기업들 탓 아니다”

[미국 금융]

- WSJ: 은행들 위험한 ‘핫’ 예금 1조2천억 쌓아뒀다
- CNBC: 미국 소비자들, “1년전보다 신용 얻기가 더 힘들다”
- Bloomberg: 유럽 등 중앙은행들, 인플레이로 장기간 금리 인상 예정

[뉴저지]

- NYT: 13년만에 허드슨강 철도 터널 재착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8월, 미 소규모 자영업 신뢰지수 하락
- CNBC: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탄소 흡수에 투자하다
- WSJ: 구글, 미 독점 금지법 위반 재판... 검색 엔진 때문
- WSJ: ‘자동차 회사 근무자들, 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 CNN Business: 테슬라 주가 급등...모건 스탠리, 슈퍼컴퓨터 시장가치 5천억 추가 예측에
- CNN Business: 맥도날드, 셀프 탄산음료 기계 없앤다
- CNN Business: AI가 만든 코카콜라의 최신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Worried About the American Consumer? Don't Be.

미 소비자 재정 사정 좋아... 자산 급등으로

- 가계 순 자산이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중에 주택 가치와 주택 자산 수준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 소비자들은 2019년의 경계심이나 높은 저축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00년 봄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나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보다 현재 가계가 더 부유해졌다.
- 이같은 증가는 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자산이 급증한 이유 때문이다.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자산은 2000년대 중반에 보였던 최고치를 넘어섰으며, 2022년 말 잠시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회복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

The Housing Bonus

Household wealth has been bloated by the pandemic surge in home prices

Net worth as percentage of disposable personal income



Sourc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Note: Data is quarterly, not seasonally adjusted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flation Outlook Stable, Credit Pessimism Rises in Fed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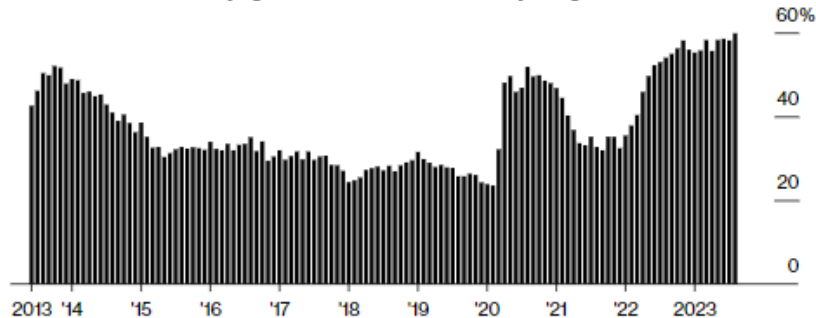
미국인, 미 인플레 안정 느끼지만 일자리 등 에 우려

- 뉴욕연방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는 8월에 안정화되었지만 그들의 재정 상태나 일자리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제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향후 1년 인플레 기대치 중간값은 3.5%에서 지난 8월에는 3.6% 소폭 상승했다. 3년후 인플레 기대치는 2.9%에서 2.8%, 그리고 5년후 인플레 전망은 2.9%에서 3.0%로 상승했다.
- 또한 연준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신용 여건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상황에 대한 기대감 모두 악화되었다는 것.
- 향후 1년간 실직할 확률은 2% 포인트 오른 13.8%로 지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과 연 소득 5만불 미만자의 증가폭이 더 컸다.

Consumers Find it Harder to Tap Credit

The share of households saying it is "somewhat" or "much" harder to access credit rose to the highest since survey started in 2013

Share of consumers saying credit harder to obtain than a year ago



Source: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Bloomberg 기사

Bloomberg: Greedy US Firms Not to Blame for Inflation, Fed Study Suggests

“미국 인플레 급증은 탐욕스런 기업들 탓 아니다”

-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업들의 탐욕성이 미국 인플레를 급증 시킨 이유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연준의 경제학자인 Berardino Palazzo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에 제공된 재정지원이나 금융지원을 고려해 볼때,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그는 정부의 전례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기업의 순이자 비용을 상당히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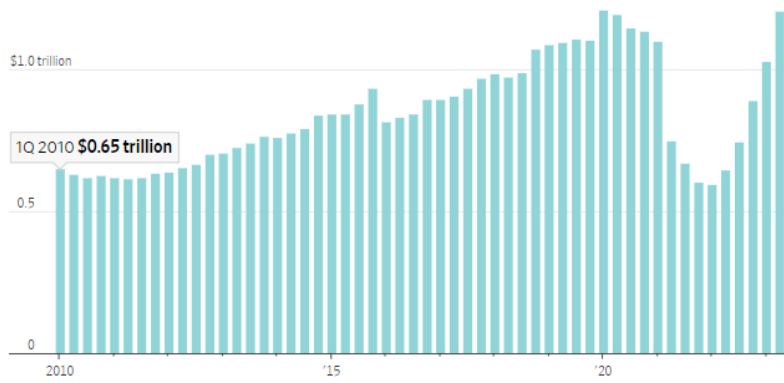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Banks Load Up on \$1.2 Trillion in Risky 'Hot' Deposits 은행들 위험한 '핫' 예금 1조2천억 쌓아뒀다

- 미국 은행들은 올해 2분기에 총 1조 2천억달러의 중개 예금(brokered deposits)을 갖고 있고 이는 1년전에 비해 86%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방예금보험공사 데이터를 분석할 결과 밝혀졌다.
- 중개예금은 예컨대, 은행들이 모건 스탠리나 피델리티외와 같은 제 3자 중개회사를 통해 고수익 CD에 투자할 고객들을 찾는다. 개별 고객을 찾기 보다는 한번에 많은 큰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
- 이는 고객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많은 대출 기관들에 어려움을 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 신용등급 기관들은 올 여름 여러 지역의 지역 은행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중개 예금을 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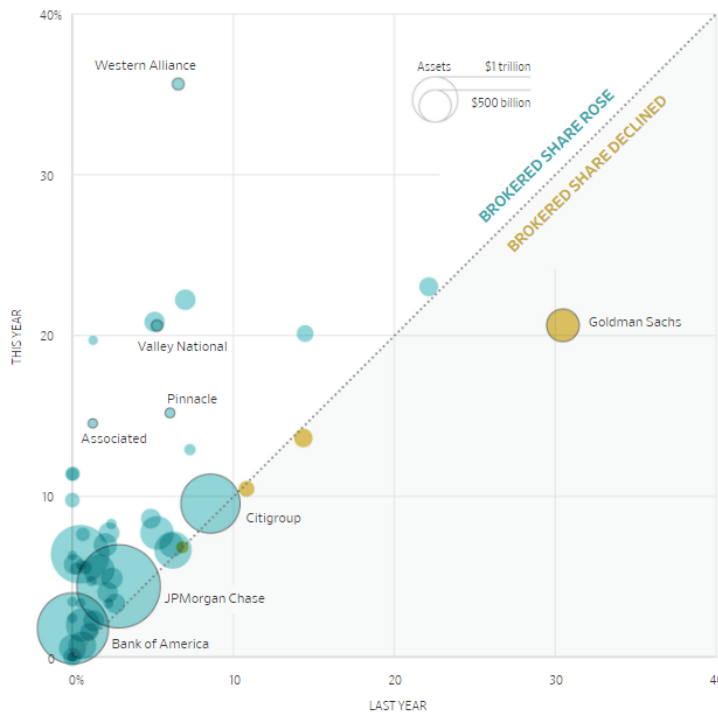
WSJ 기사

Total brokered deposits across banks



Note: Changes to FDIC rules in 2021 resulted in fewer deposits that would have previously been considered 'brokered' being reported as such.
Sourc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Brokered deposits as a share of all domestic deposits, this year vs. last year



Note: Data are as of the second quarter of each year and include reciprocal deposits.
Sources: FDIC (deposits); Federal Reserve (assets)
Peter Santilli/THE WALL STREET JOURNAL

CNBC: Fears over access to credit hit highest level in more than a decade, New York Fed survey shows 미국 소비자들, “1년전보다 신용 얻기가 더 힘들다”

- 어제 월요일 발표된 뉴욕연방은행 설문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은 계속 오르는 금리와 은행의 엄격한 기준 탓으로 신용 대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한마디로 대출, 신용카드, 모기지 대출 받는 것이 1년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자 비율이 거의 6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뉴욕 연준의 8월 소비자 기대 심리의 일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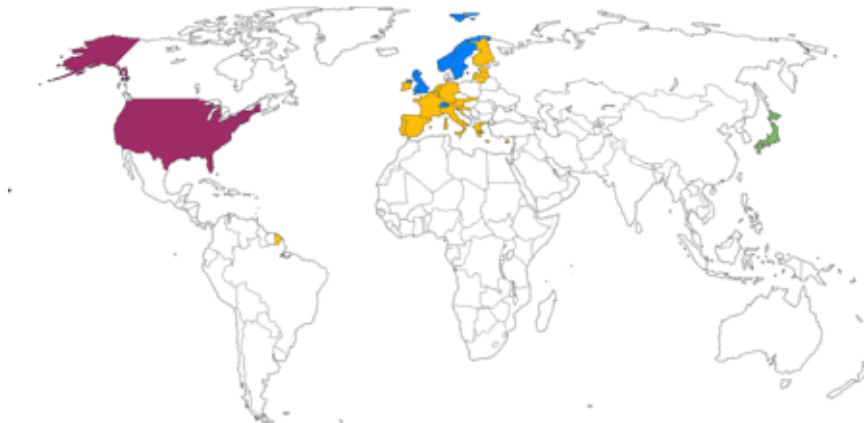
CNBC 기사

Bloomberg: Central Banks Set for Higher for Longer to Fight Inflation 유럽 등 중앙은행들, 인플레로 장기간 금리 인상 예정

- 다음주 즈음 달러와 유로를 포함한 세계에서 많이 거래되는 통화 10개중에 7개 통화에 대한 차입 비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책 축수가 장기화 될 것으로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후에 동결하는것으로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 연준은 드문 상황인데 연착륙을 모색하면서 금리를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pcoming G-10 Central Bank Rate Decisions

■ Sept. 14 ■ Sept. 20 ■ Sept. 21 ■ Sept. 22



Source: Bloomberg
Note: Mapped data show rate decision schedules for distinct central banks.

Bloomberg 기사

[뉴저지]

NYT: 13 Years Later, Construction to Restart on Hudson River Rail Tunnel 13년만에 허드슨강 철도 터널 재착공

- 13년간 지연된 끝에 뉴저지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까지 이어지는 철도 터널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 빠르면 10월부터 거대한 굴착 장비가 암벽을 뚫어 허드슨 강 아래를 지나 는 교량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 1백61억달러가 소요되는 이 두개 트랙 터널은 ‘게이트 웨이’로 알려진 미 최대 규모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이

NY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US Small-Business Sentiment Darkened in August 8월, 미 소규모 자영업 신뢰지수 하락

- 8월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계속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낙과적인 심리가 소폭 하락했다.
- 전국 기업 연합회(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오늘 화요일 소규모 자영업 낙관지수가 7월 91.9에서 91.3으로 하락했으며, 49년간의 평균치인 98을 20개월 연속으로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 소규모 영업주들은 앞으로의 매출과 경영조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고 NFIB의 수석 경제학자인 Bill Dunkel berg가 말했다.

WSJ 기사

CNBC: Amazon follows Microsoft, investing big in carbon capture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탄소 흡수에 투자하다

- 아마존이 탄소 제거 기술 기업인 1 Point Five를 통해 향후 10년간 25만 톤의 탄소를 제거하고, 이를 위해 탄소 포집 기술(DAC)에 투자할 것이라고 오늘 화요일 발표했다.
- 이 기술에 의해 공기 중에 제거된 탄소는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거대 암석 지형의 대염수층(saline aquifers)에 저장된다.
- 아마존의 이런 발표는 석회석을 이용해 대기 중에 탄소를 제거하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스타트업 Heirloom Carbon에 투자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에 이어 나온 것이다.

CNBC 기사

WSJ: U.S. v. Google: What to Know About the Biggest Antitrust Trial in 20 Years

구글, 미 독점 금지법 위반 재판... 검색 엔진 때문

- 미국을 대표하는 검색 엔진인 구글이 이번주 미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면서 이 회사의 사상 최대의 법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의 검색 엔진을 겨냥하고 있는데 구글이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경쟁업체를 약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광고주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For Auto Workers, It Isn't Just About Pay '자동차 회사 근무자들, 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간 많은 기업에 스며들었다. 이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파급을 미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에 조합(The United Auto Workers union)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 금요일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데 미흡한 임금뿐만 아니라 조립 라인 근로자들의 삶의 개선을 포함한다.
- 구체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32시간으로 단축되고, 더 많은 유급휴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또한 부품 부족과 잦은 생산 차질로 인해 근무 일정이 어지러운 상황을 개선해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Tesla shares jump after Morgan Stanley predicts Ojo supercomputer could add \$500 billion in market value

테슬라 주가 급등...모건 스탠리, 슈퍼컴퓨터 시장가치 5천억 추가 예측에

-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전기차 시장의 가치를 5천억달러 상승시킬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이 어제 월요일 말했다.
- 자동차 회사의 슈퍼컴퓨터 활용 가능성을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한 뒤에 월요일 아침에 테슬라의 주가는 6% 이상 올랐다.
- 오랜 시간 동안 테슬라를 분석한 Adam Jon은 더 넓은 분야에 로봇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활용되면서, 도조 컴퓨터 잠재적인 수익 창출이 거대한 시장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 또한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도조가' 고정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수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본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McDonald's is getting rid of self-serve soda machines

맥도날드, 셀프 탄산음료 기계 없앤다

- 맥도날드가 2032년까지 셀프 탄산음료 기계를 제거할 예정이다. 기업관계자는 이런 변화가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일관된 경험(experience consistent)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맥도날드는 더 규모가 작아지거나 매장 내 테이블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가장 최근의 수입 보고에서 따르면 온라인 판매가 전체 매출의 40%를 구성했다.
- 또한 식사 공간을 줄인 새로운 소형 매장인 코스맥스(CosMc's)라는 주요한 새 변화를 최근 예고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Coke's latest mystery flavor is here. It's created by AI AI가 만든 코카콜라의 최신작

- 대략 1년에서 1년 반 동안, 코카콜라가 신비한 맛의 한정 에디션 음료를 시범 판매한다. 음료의 컨셉은 모호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확인할 수 없는 특징을 가졌다.
-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코카콜라 Y3000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맛과 패키징을 통해 미래형 맛을 선보인다.
-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기피하면서 탄산음료 판매업체들은 기존의 브랜드를 마케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 코카콜라는 Y3000과 같은 한정판 맛을 담당하는 크리에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젊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뉴욕 연은 조사 "8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신용 우려 고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3.6%..."신용접근 어려워져" 응답은 '2013년 후 최고'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는 안정적이었던 반면 신용(대출) 및 실업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는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 연은은 8월 소비심리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1년 뒤 미국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중간값)이 3.6%를 기록, 7월 조사(3.5%)보다 소폭 올라간 것으로 발표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년 뒤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2.9%)보다 소폭 내려온 2.8%였고, 5년 뒤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2.9%)보다 소폭 오른 3.0%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